

## 내년 지방선거 장애인 사전투표 어찌하나

광주 투표소 95곳중 85곳 계단 이용 2·3층 첫 시행 앞두고 광주선관위 대책 마련 고심

광주시 선관위가 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환경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선정 등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선관위가 사전 투표소 설치 장소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9곳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2층 이상의

는 2층(68곳)과 3층(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곳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1층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사전 투표제가 실시되더라도 장애인들은 사실상 투표소 접근이 어려워 사전 투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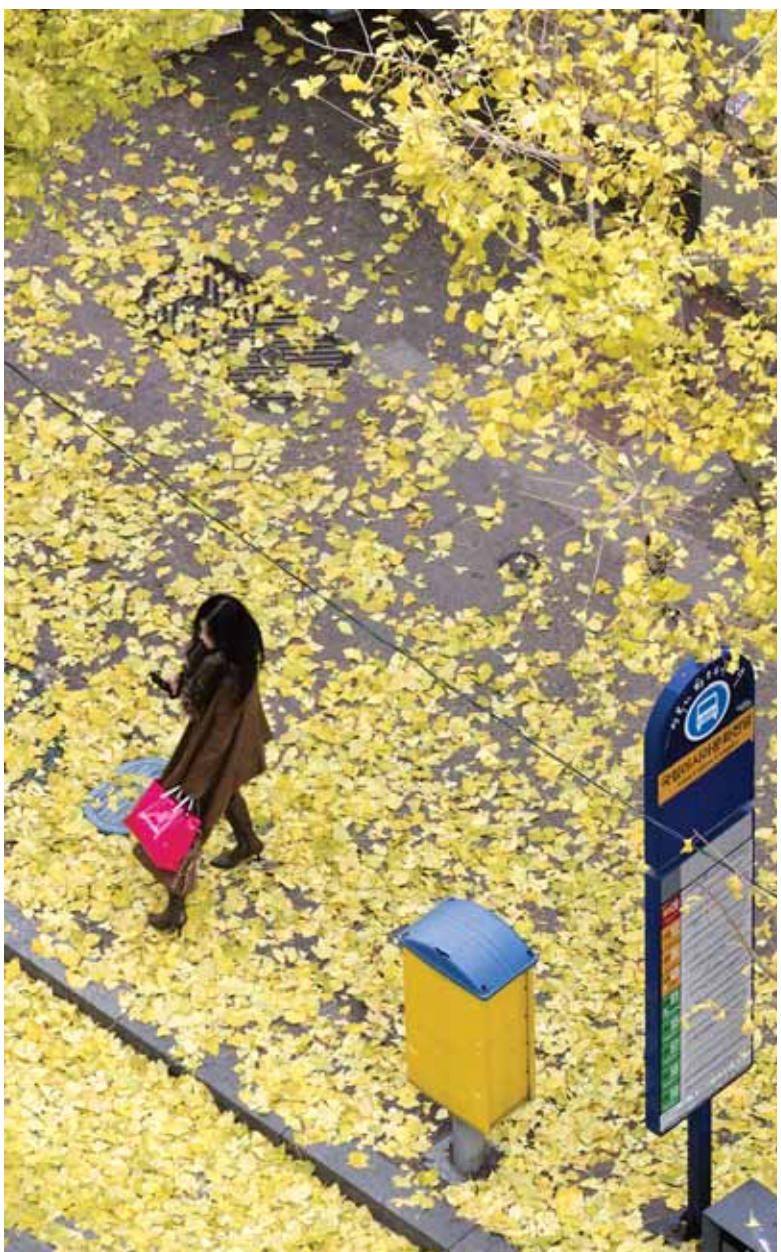
이처럼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장소로 사전 투표소가 선정된 것은 사전투표의 경우 전국 통신망 연결을 위해서 공공기관 전산망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시설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 각 동별로는 주민센터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선관위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다.

우선 사전 투표가 이뤄지는 이틀(5월30일~31일) 간 2, 3층으로 접근이 어려운 해당 투표소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 기표소를 마련해 장애인 유권자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2층 이상 높이의 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장애인들의



가을 여인, 누굴 기다리나  
초겨울 세찬 비바람이 몰아친 2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의 발 아래로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수북이 쌓여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의 참정권을 보장해줄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각 주민센터의 1층에 기표소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층에 임시 투표소를 분리 설치할 경우 장애인 유권자들이 '차별'이라고 반발할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 장애인 투표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이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이전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제9회 광일문학상 동화작가 윤삼현씨

광주일보가 주관하는 2013년 제9회 광일문학상(이하 광일문학상)에 동화작가 윤삼현(61) 씨의 '찰마와 소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12면>

광일문학상 심사를 맡은 고재중 시인과 채희윤 소설가는 지난 21일 광주일보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가진 심사사에서 '찰마와 소녀'를 올해의 수상작으로 뽑았다.

심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구성과 상상력이 어린이를 하여금 동화를 읽게 하는 강점이 있다"고 평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광일신춘



문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윤 교사는 광주 문산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광일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활동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2014년 1월 중 신춘문에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spark@kwangju.co.kr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2013년 12월19(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062)605-1114

알림

**제49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플코스·하프코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출발

최고의 전통, 최상의 코스, 최선의 진행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내년 3월1일 개최됩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세계만방에 알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 마라톤은 2014년 제49회째 대회를 맞아 호남은 물론 전국 마라톤러들과 그 가족이 함께 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열리게 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에서 출발, 영산강변을 따라 승촌보를 반환하여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끝나는 코스로 이루어진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의 상징적인 장소를 모두 경유하는 명품코스의 대회로 치러집니다.

광주일보사는 이번 대회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가족과 직장, 동호인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봄의 힘찬 기운이 약동하는 대지를 함께 달립니다.

- 일시: 2014년 3월 1일(토) 08:30 ~ 16:00
- 출발시간 - 플코스 08시 30분, 하프 08시 40분, 10km 09시 10분, 5km 09시 20분
- 종목 및 코스  
플코스: 아시아문화전당→승촌보반환→광주월드컵경기장 끝  
하프코스: 아시아문화전당→서창교반환→광주월드컵경기장 끝  
10km·5km: 광주월드컵경기장→만호초교→광주월드컵경기장 끝
- 마감: 2014년 2월 5일(수)
- 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kjmedia.co.kr) (062)220-0541
- 주최: 광주일보사
- 주관: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 광주시의사회 1000만원·해양도시가스 300만원

### '광주 진료소' 성금 답지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 정신'을 동반아시아에 전파하기 위한 '광주 진료소'(Gwangju Clinic)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성금모금 운동 첫날인 25일 1300만원의 성금이 답지했다.

25일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성금모금 첫날인 이날 광주시의사회가 1000만원을, (주)해양도시가스가 300만원을 광주진료소 건립 성금으로 기부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광주진료소' 개설 추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지역

의약 5단체 중 한 곳이다. '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동석 광주시의사회 회장은 "광주 진료소 추진에 지역외교계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성금을 기부했으며, 앞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지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주)해양도시가스가 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주)해양도시가스측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성금을 기탁했다고 알려졌다.

동반아시아의 '광주 진료소' 개설

추진사업에는 광주일보와 아시아 지원 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 광주시·광주시의회를 비롯한 광주시의사회·광주시약사회·광주시치과의사회·광주시한의사회·광주시간호사회 등 광주지역 의약 5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모금계좌= 광주은행 013-107-337079(예금주: 공동모금회 광주광역시지회)

▲문의 전화=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062-222-3566), (사)희망나무 사무국(062-675-7118)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군 직영 농수특산물 종합쇼핑몰  
**땅끝해남 농특산물로 김장하세요!!**

# 해남미소

무료전화 080-859-1100 일반전화 061-537-1472

인터넷 검색창에 **해남미소** 를 쳐보세요!  
[www.해남미소.한국](http://www.해남미소.한국)

해남절임배추는 박스에 생산자와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되지 않은 것은 해남산이 아닙니다.